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0월 29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10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94.5, 예상상회
- 2)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인한 미국 국적 포기자 3/4분기 39% 급증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독일, 도이체방크, 3분기 순익 하회
- 2) 세계은행, 중국에 내년 성장 목표 7% 설정 촉구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구글, 암세포 진단 알약 개발 중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10월 중 소비자신뢰지수 94.5, 예상상회

- 지난 28일 미국 민간 경제연구소 컨퍼런스보드는 10월 중 소비자신뢰지수가 94.5를 기록 2007년 10월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87.0를 상회하며 95.2를 기록했던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됨
- 한편, 컨퍼런스보드는 앞서 86.0으로 발표했던 9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도 89.0으로 상향조정

2)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인한 미국 국적 포기자 3/4분기 39% 급증

- 지난 25일 미 재무부는 금년 3/4분기에만 776명의 미국 국민이 시민권·영주권을 포기, 지난 2/4분기 대비 39% 증가했다고 발표
- 올해 현재까지 누적된 미 국적 포기자 수는 2,353명으로,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전년도 기록 2,999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
-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
 - 미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‘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(FATCA)’를 통해 부자들의 해외 은닉 자산 추적을 강화, FATCA에 따라 해외거주 미국인들은 자신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(IRS)에 보고해야하기 때문
 - 또한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도 자사에 5만달러 이상 예치된 미국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함

-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권·영주권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7,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
 - 연소득 9만7,600달러 이하인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국외 소득분 세금이 면제되지만 고소득자들 해당사항 없기 때문
- 한편, 미국 정부는 최근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지난달부터 미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450달러에서 2,350달러로 5배 넘게 증가시킨 바 있음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독일, 도이체방크, 3분기 순익 하회

- 지난 29일 WSJ은 도이체방크가 3분기 매출로 79억유로, 순손실 9천4백만유로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으며, 매출은 2분기 79억6천만유로보다 소폭 늘었지만 순이익은 지난 2분기 2억3천7백만만유로보다 하회하는 결과
 -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 부진이 소송비용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, 현재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환율 조작 사건 등으로 미국과 유럽 금융당국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도이체방크는 3분기 들어서만 8억9천4백만유로를 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 바 있음
- 한편 도이체방크는 이날 실적 발표 전 최고재무책임자(CFO) 교체를 단행, 슈테판 크라우제 CFO가 물러나고 골드만삭스 출신 마르쿠스 쉐크 신임 CFO가 새로 취임했다고 발표

2) 세계은행, 중국에 내년 성장 목표 7% 설정 촉구

- 지난 29일 세계은행(WB)은 중국정부에 내년 경제성장 목표를 7%선으로 설정하도록 촉구
 - 전문가들은 7%로 성장률이 떨어져도 고용시장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며, 무리하게 올해의 7.5% 목표를 내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은 개혁에 큰 위험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
- 또한, 전문가들은 7% 근방에서 중국경제가 성장한다 하여도 이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
- 한편, 중국정부는 내년 3월에 내년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구글, 암세포 진단 알약 개발 중

- 지난 28일 구글X 생명과학 부문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암이나 기타 질병의 징조를 파악하는 알약을 개발 중이라고 밝힘
 - 그는 이 알약이 체내로 섭취되면 세포나 단백질, 기타 분자와 결합해 암과 여러 질병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
- 한편, 이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자기기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으며, 이를 위해 약 100명의 구글 직원이 연구에 매진